



[뉴스] 연말 대목인데 자영업 '비명' 주류업계 '한숨' 02



Economy

코스피	2617.76 (+15.17)	코스닥	872.10 (-1.19)
금리 (미국 3년)	0.963 (+0.008)	환율 (원/달러)	1112.70 (+2.30) (24일)



코스피가 24일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17포인트 (0.58%) 오른 2,617.76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 外人 2주새 7조 매수 주가 3000시대 '견인'

## 코스피 새 지평

〈上〉 2600선 시대, 배경은

외국인 14일 연속 매수 행진 바이든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백신 개발 등 투자심리 개선

전일 최고가 넘어 2617 마감 내년 3000선 장밋빛 전망도

코스피지수가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8년 1월 29일에 세운 종가 기준 역대 최고 기록 2598.19를 넘어 '코스피 2600시대'를 열었다. 내년에는 3000까지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24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보다 15.17포인트 (0.58%) 상승한 2617.76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지수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본격적으로 돌아온 외국인은 이날 726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최근 14거래일 동안 코스피시장에서만 7조921억원어치나 샀다.

### ◆ 코로나19 '팬데믹'이 변수

올해 세계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 국외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고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3월 19일 코스피는 1457.64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당시 코스피 대표주 삼성전자의 종가는 4만2950원이었다.

역사상 국내 증시의 수급은 대부분 외국인이 주도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공식이 깨져버렸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증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규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들은 '동학개미운동'을 자처하며 코스피 대형주와 코로나 수혜주로 꼽히는 언택트주(Untact·비대면)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국내 증시가 가장 큰 폭으로 폭락했던 지난 3월 동학개미는 무려 11조 1900억원을 순매수해 낙폭이 컸던 종목을 사모이기 시작했다.

'동학개미'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미국은 로빈후드, 일본은 닌자개미, 중국에서는 인민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각국의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증시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잔고와 투자자예탁금, 신용거래용자잔고는 여전히 풍부한 상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CMA 잔고는 64억7009억원, 투자자예탁금은 62억9947억원원에 달한다. 특히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10조원에 넘게 늘었다. 30조원에 불과했던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이다. 신용거래용자잔고는 17조382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보다 8조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난 개인투자자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 ◆ 원화 강세에 돌아온 외인

미국 대선 이후 11월 들어 수급 흐름이 바뀌고 있다. 외국인인 1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를 2600선으로 이끌었다. 동학개미가 주도하던 장세를 '돌아온 외국인'이 이어받은 모양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동안 7조921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5조393억원, 기관은 1조8464억원을 순매도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이 미 대선 승리 선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원화 강세) 전망이 이어지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해 불복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미 증시 마감 후 바이든에 정권 이양을 협력하겠다고 발표해 패배를 인정했다"며 "시장이 우려했던 불복 장기화에 따른 정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임상1상 돌입

'NBP2001' 임상1상 IND 최종 승인 아스트레제네카 백신 최대 90%효과

SK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청신호를 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에 돌입함과 동시에, 이 회사가 위탁생산할 아스트레제네카 코로나19 백신도 90% 이상의 예방률을 달성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연내 백신 확보와 내년 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 ◆ 바이러스 방어능력 확인

24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NBP2001'의 임상1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비임상 시험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확보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I

ND 승인에 따라 즉시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NBP2001의 영장류 대상 효력 시험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청보다 약 10배 높은 중화항체를 유도했다.

또 영장류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투여한 결과 위약을 투여한 시험군에선 100% 감염이 일어난 반면 NBP2001을 통해 중화항체가 유도된 시험군에선 기도와 폐 등 호흡기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하는 방어능력을 확인했다. 또 동물효력시험에서 면역원성과 중화항체 생성능력,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어능력을 검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비임상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빠르게 임상1상을 시작하고 즉시 후속 임상시험 준비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임상1상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체내 안전성과 함께 면역원성을 집중 평가하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NBP2001이 단백질 배양과 정제 과정을 거쳐 안정화된 합성항원백신이란 점에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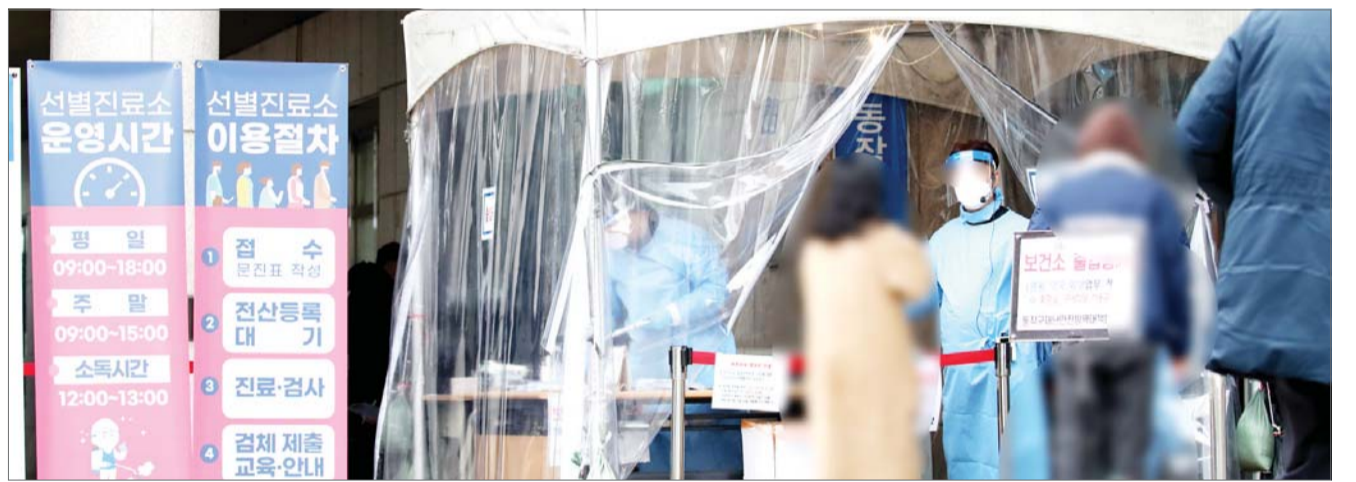
### ◆ 아스트레제네카 백신 공급 '기대'

아스트레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아스트레제네카는 이날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평균 예방 효과가 70%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스트레제네카는 첫 번째는 백신 1회분의 절반 용량만, 두 번째는 1회분 전체 용량을 투약할 경우 예방 효과는 90%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서울 지난해 코로나 양성률 '역대 최고'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양성률(검사건수 대비 확진건수)이 지난해(11월 15~21일)에 4.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24일 밝혔다. 기존 최고 기록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들이 쏟아져나오던 8월 16~22일의 4.55%였다.

###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양성률(검사건수 대비 확진건수)이 지난해(11월 15~21일)에 4.7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24일 밝혔다. 기존 최고 기록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들이 쏟아져나오던 8월 16~22일의 4.55%였다.

사건들이 일어났다.

/연합뉴스

## 메트로신문 오늘 '2020 뉴테크놀로지포럼' 개최

# 충격적 진화... AI·빅데이터 미래 한눈에

### 올해 AI언어모델 GPT-3 개발에 완전무인 자율차까지 진화 속도

2016년 서울에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국이 열려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후, 올해 또 다시 인공지능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알파고 이후 '세계 최고의 AI'로 평가되는 언어처리 모델 'GPT-3'가 개발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 시점이 더 빨리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안겼을 정도다. GPT-3는 이미 여러 테스트에서 사람의 인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 AI가 얼마나 진화할 수 있는지 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결국은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AI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조종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19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GPT-3는 놀라우리만큼 문장 생성을 잘 하고 사용자 질문에 그럴듯한 답을 하는데, 이는 과거의 문장을 학습해 바로 다음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찾아내는 방식"이라며 "상식적으로 존 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에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라고 반문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답을 찾는 한계를 보여준

다"고 평가했다. 또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웨이모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작한 것은 당초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진전을 보여줬다.

(L7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